

내장산 가을 단풍 트레킹 인기 폭발

정읍시+승우여행사 관광상품 '내장산 히든로드' 입소문 산천유수길 예약 200% 넘어 관광객 탑승 버스 추가 투입



정읍시의 내장산 트레킹 관광상품 '내장산 히든로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우화정 단풍.

정읍시가 트레킹 전문여행사인 승우여행사와 공동으로 내놓은 지역특화 관광상품 '내장산 히든로드'가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고 있다.

정읍시는 이달 시범운영 중인 '내장산 히든로드'의 '오색단풍길'과 '산천유수길' 등 산천유수길의 예약인원이 예상의 200%를 넘어 관광객 탑승 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일과 9일, 13일로 예정된 산천유수길과 6일 일정을 남겨둔 오색단풍길까지 일일 버스 운행 횟수가 각각 2배로 증가된다.

내장산 히든로드의 산천유수길은 솔타마을에서 시작해 내장산단풍생태공원과 내장산조각공원, 솔타마루길, 솔타숲 옛길, 방문자센터, 내장호둘레길, 내장산관파테마파크까지 이르는 길이다.

내장호 주변으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풍경과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접근성 등이 인기 비결로 보

인다. 오색단풍길은 추령에서 장군봉, 연자봉, 내장사, 단풍터널을 거쳐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까지 이어지는 3시간 코스로 내장산 단풍의 절경을 만끽하기에 좋은 트레킹 코스다.

시는 향후 모니터링 등 분석을 거쳐 가을에만 집중된 관광객 수요를 해소하고 내장산의 사계절 관

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전략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내장산과 내장호, 구절초지방정원 등 걷기 좋고 다양한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정읍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트레킹과 생태관광 코스를 발굴해 상품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정읍 구도심 탐험 스탬프투어 어때요

쌍화차거리 등 완주시 사은품

정읍시가 정읍의 구도심의 매력을 탐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정읍시는 오는 9일까지 색고을시장과 중앙로, 우암로, 새암로 등 정다운상권 일대를 배경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사전 신청을 거친 관광객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구도심의 전통과 현대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투어 코스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색고을시장의 스토리텔링을 시작으로 맛집 탐방과 떡 만들기 체험, 시기동 성당, 그래피티 거리, 쌍화차거리 등 정읍의 특별한 장소를 아우른다.

모든 코스를 완료하고 스탬프를 모은 참가자에



정읍시의 구도심 정다운상권 '스탬프투어'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쌍화차거리의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게는 기념품이 증정돼 더욱 풍성한 참여 경험을 제공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다운상권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시장의 매력을 소개하고 지역 로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행

사"라며 "정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를 관광객들이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다운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으로 지역 매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군 광고·홍보 현수막 지정계시대 '직영'

옥외광고 사업자 등 홈페이지 신청

고창군이 현수막 지정계시대를 직영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6단형 55개, 저단형 49개의 현수막 지정계시대 시설

을 직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군은 계시대 시설물의 일제 점검을 통해 사용에 불편함이 없이 보수를 완료했다.

누구나 계시대의 위치를 알 수 있게 관리번호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계시대 이용 홈페이지를 개설

해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계시대 3개소와 수요가 많은 지역 1개소에 계시대를 설치하고 고창읍성 주차장 입구에는 전자계시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계시대 이용 방법은 광고주나 옥외광고 사업자가 누구나 고창군 현수막지정계시대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이달까지 산물벼 501t·건조벼 4592t·가루쌀 1349t

남원시는 5일 대산면 용야창고의 첫 매입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가루쌀, 피해벼 건조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등 총 매입량은 6442t 규모로 산물벼 501t, 건조벼 4592t, 가루쌀 1349t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품종은 운봉 등 산간부의 경우 조담, 중·평야부는 참동진 벼 2개 품종이다. 매입된 양곡은 남원시 관내 38개소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입고된다.

쌀 품질검정제와 관련해 매입대상 품종 외 품종을 부정하게 출하하다 적발되면 향후 5년간 공공

비축미국 매입에서 제외된다. 수분함량은 13.0~15.0%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매입가격은 농가 수매 직후 3만원(40kg)이었던 중간정산금을 올해부터 4만원(40kg)으로 인상해 우선 지급한다. 최종 정산금은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최종 확정 지급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건조벼 출하능가가 정선, 중량, 수분함량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주거환경 개선 '국토부장관상'



부산에서 열린 '2024 도시재생조항마당·부산도시재생박람회'의 주거환경 개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고창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우수사례 공모 대상

고창군은 주거환경 개선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고창군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재생의 본보기가 될 성과창출의 모범사례"라

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조화로운 경관 조성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경관자원 특색을 살리고 주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향이·몽이' 캐릭터 페스티벌 본선행

남원시가 '2024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에서 남원시의 공식 캐릭터인 '향이·몽이'가 본선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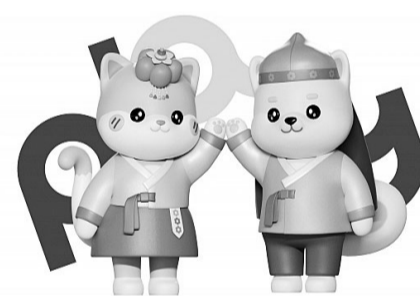
이 공모전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대전관광공사의 주관으로 각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정책, 지역, 축제 등의 홍보 캐릭터를 대상으로 열렸다.

심사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2024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 마스크트 콘서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향이·몽이'는 남원을 대표하는 춘향과 몽룡을 고양이(코리안 쇼트헤어)와 강아지(진돗개 백구)를 의인화한 캐릭터다.

올해 출시된 '향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배포 10여 분 만에 소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얻기도 했다.

지난 12월 상표출원을 마친 '향이·몽이'는 민간



에 개방해 활용토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남원을 소개하는 캐릭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투표는 행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